

# “더 큰 영암 도약” 군민 생활체감 혁신한다

### 영암형 취직 사회책임제...청년·지역사회 선순환 구조 천혜 자원 ‘달빛생태’ 집약...‘국립공원 박람회’ 첫 개최도

영암군이 ‘더 큰 영암’ 실현을 위해 군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혁신수도’, ‘청년회도시’, ‘마한의 심장 달빛생태도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청년활력 ▲달빛생태 ▲미래첨단농업 ▲지역순환경제 ▲에너지대 전환 등 5대 군정 혁신 키워드를 기초로 평범한 영암군민이 생활에서 혁신을 체감하는 결실의 수확에 나선다.

영암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8천794건 12억3천600만원 모금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2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 실시한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영암맘(mom) 안심 프로젝트’는 ‘적극 행정’의 사례로 손꼽히며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달에는 고향사랑기부금사업으로 24년 만에 영암군에 소아청소년과

를 개설해 지역 아이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암군의 혁신은 청년 분야에서부터 도약의 계기를 맞을 전망이다. ‘영암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지역사회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이 제도로 기회를 얻은 청년들은 지역에서 꿈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청년과 지역사회가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며 영암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자리 잡은 ‘일자리 박람회’는 해마다 다양성과 규모를 확대하며 청년과 지역기업을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지원센터와 위케어센터 등 청년 활력 기반시설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일자리 네트워크 채널도 제자리를 잡아



영암군이 지난 6월 26일 청년활력의 거점이 될 청년종합소통센터 ‘달빛청춘마루’를 개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갈 것으로 보인다.

청년활력의 거점이 될 청년종합소통센터 ‘달빛청춘마루’가 올해 영암읍에 개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청년 네트워크, 소통 플랫폼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영암군은 월출산국립공원과 남도의 젓줄 영산강, 호남명촌 구림마을 등 천혜의 관광문화자원을 ‘달빛생태’의 이

름에 집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마을호텔 조성 등 ‘호남명촌 구림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구림마을을 전주 한옥마을과 견줄 체류형 문화관광지로 바꿀 계획이다.

또 월출산국립공원의 가치를 드높일 ‘국립공원 박람회’가 올해 11월1-3일 첫 개최된다. 영암군은 2027년까지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로 키워간다는 목표

다. 여기에 이색 체험관광과 먹거리·정원·생태 힐링 테마지구를 골자로 한 ‘월출산 천왕산 권역 종합개발계획’을 더해 경제관광 클러스터 구축도 모색한다.

이 밖에도 영암형 에너지대 전환을 골격으로 ‘2050 영암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영암군에너지센터를 콘드 톨타워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신재생 생활에너지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탄소저감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숲을

조성하고, 2027년에 들어설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는 남생이 생태공원을 추가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영암군의 혁신은 지역사회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영암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혁신의 성과를 집약하고 ‘더 큰 영암’으로 순조로운 도약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암=나동호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 “해상풍력 산업 메카 도약”

### 목포신항 내 99MW 규모 기자재 적치 현장 점검

박홍률 목포시장이 최근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신항 현장을 방문(사진)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목포신항 부두에는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전남해상풍력, SK E&S)의 터빈, 블레이드, 타워 등 99MW규모의 기자재가 적치돼 있으며, 이달부터 지은 도 해상으로 운송돼 오는 12월 준공 및 상업운전이 예정돼 있다.

목포신항은 국내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기자재의 생산과 조립, 해상운송은 물론 R&D(연구개발)와 기업지원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허브항만으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세계 1위 터빈제조사인 ‘베스타스’ 및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와 3천억원 규모의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6월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신청된 41만6천㎡(12만6천여평)이 지정되는 등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상풍력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속에서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해 사회·경제적 측면에 부각한 지역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 강진 ‘불금불파’ 재개장 “맛과 멋 잡았다”

### 불고기 맛 개선·행사장 증축·포토존 리뉴얼 등

더 알찬 모습으로 돌아온 강진 ‘불금불파’가 맛과 멋을 사로잡으며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2달간 휴장을 가졌던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가 재개장한 가운데 불향이 가득한 고기의 맛을 사로잡기 위해 여러 차례 시연을 통해 한층 ‘더 맛있는 맛’을 잡았고, 행사장 뒤편의 창고와 빈 집을 헐어 행사장을 넓혔다.

또한 포토존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조산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오는 길 곳곳마다 포토존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다양

한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선보인 ‘전통주 빚기 체험 프로그램’과 ‘엽서만들기 체험’이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개장 첫날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25명은 전통주 빚기 체험을 즐기며, EDM DJ공연에 리듬을 탔다. 행사 후 하멜테트촌으로 자리를 옮겨 캠프파이어를 즐기며 군이 하반기부터 힘과 신과 있는 체류형 관광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다.

본격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5시부터는 신나는 공연과 함께 불고기를 비롯한 행사장 내에서 파는 음식들을 맛보며 한층 시원해진 날씨 속에 여름을 즐

겼다. 특히 술과 음료의 시원함을 유지하고자 준비한 LED 얼음 양동이는 큰 인기를 모았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다시 불금불파를 찾은 한 관광객은 “행사장 분위기가 더 밝아졌고, 불고기 맛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며 “지역 축제가 잘 되는 데에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일차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불금불파의 새 단장을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지역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돼 준비했다”며 “올 가을 행사장에 방문해 불향 가득한 불고기와 신나는 댄스로 스트레스를 날리고, 매력 만점 병원에서 좋은 추억을 가득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 쌀 소비 촉진 협약

### 신안농협·신안암태주조장과 MOU 체결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는 “최근 신안농협, 신안암태주조장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쌀 소비 생활화를 주도하고 쌀 가공품인 전통주 활성화를 협력했다. 조영범 신안농협 조합

장은 “지역쌀을 활용해 특색 있는 전통주를 생산하고 쌀 가공품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성진 신안암태주조장 대표는 “앞으로 지역 쌀을 이용한 전통주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쌀 소비 촉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안종팔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



부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신안암태주조장과 협업체 전통주를 활용한 쌀 판로 확대에 노력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기자

## 영광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최

###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해강 결과 보고·조례안 등 심사

영광군의회가 오는 2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0월2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11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일부터 30일까지 ‘영광군 전통시장 및 삼정가옥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한다. 심사한 안건은 10월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

리결과 보고·추진에 서는처리결과중부실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강현(사진) 영광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과 영광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 신우철 군수 ‘완도 미래 핵심 전략 산업’ 특강

### “해양치유·해양바이오산업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내야”

완도군은 “최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신우철 완도군수가 공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완도 미래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군 미래 비전과 해양치유산업·해양바이오산업 등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계획 등을 공유해 업무 추진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

명했다. 위기 극복 방법으로 지역 전략 산업인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국립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안수산박물관 건립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 인구 유입 등을 이끌어내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 해남군,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 해남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추석 앞두고 물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 가계의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

장보기 행사는 지난 9일 문내면 우수영 오일장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열리는 북일면 좌일 오일장까지 읍·면 7개소 전통시장에서 전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9일 우수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설 명절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목장인 11일에는 해남읍 오일장에서 장보기 행사가 열린다.

해남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를 9월 한 달 동안 실시해 전통시장 이용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오는 13일까지 추석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추석 맞이 전통시장 애용, 물가안정 캠페인, 착한가격권 소 이용 홍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요금 안정화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 전통시장 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해남=박필용기자